

바이오펀드 수익률 10% 상회

현대증권, 생로병사 기준가격 1107.43 ... 제약·바이오 인기로

최근 즐기세포·바이오 테마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관련주에 투자하는 펀드도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.

현대증권에 따르면, 6월13일 출시한 <생로병사 펀드>의 7월12일 기준가격은 1107.43으로 꼭 한달만에 약 10% 넘는 수익이 났다.

생로병사 펀드는 즐기세포, 제약, 바이오, 헬스케어, 음식료주 등에 자산의 50%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됐다. 종합주가지수가 5% 조금 넘게 상승했지만 제약주가 20% 넘게 오르는 등 바이오 관련주가 두각을 드러내며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.

생로병사 펀드는 수익률이 15%가 넘으면 채권형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의 일종의 스팟펀드이지만 아깝게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다.

설정된 지 3주만인 7월 초 기준가가 1138.81까지 올랐는데 이후 바이오·제약주가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에 만족하고 빠져나와 설정액이 100억원에서 70억원대로 줄었다.

현대증권은 생로병사 펀드의 성공을 딛고 조만간 설정규모를 300억-500억원으로 확대한 생로병사 펀드 2탄을 내놓을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7/14>